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50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풍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북미 정상, 8개월만에 재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중심가 메트로폴 호텔 회담장 입구 국기 게양대 앞에서 악수하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막이 올랐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오후 6시15분(이하 현지시간·한국시간 8시15분)께 숙소인 멜리아호텔을 출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앞서 숙소인 JW메리어트 호텔을 출발, 이날 오후 6시18분께 회담장이 마련된 메트로폴호텔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이 호텔로 들어가고 나서 2분 뒤 김 위원장이 호텔로 들어갔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한국시간 오후 8시30분)께 2차 북미 정상회담 첫 만남을 가졌다.

양측은 성조기와 인공기를 배경으로 악수를

베트남 하노이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 관련기사 2면·3면

하고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장소를 이동해 환담을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환담에서 "생각해보면 어느 때 보다는 많은 고민과 노력, 그리고 인내가 필요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번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반기는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진전이 더 빨리

첫 만남 후 환담-단독회담-친교만찬 가져
트럼프 "성공적 회담일 것, 기대하고 있어"
김정은 "훌륭한 결과 확신해, 최선 다할 것"

갔으면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보기엔 우리가 상당히 잘 하고 있고 성공적"이라며 "이번 회담도 첫번째 것과 같은 성공, 아니면 더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변화를 이룰 것 같다"고 확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할 거로 생각한다"며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아주

잘 할 걸로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환담은 오후 6시37분(한국시간 오후 8시37분)께 종료됐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단독회담에 돌입했다. 단독회담은 20분가량 진행됐다.

두 정상은 이어 오후 7시(한국시간 오후 9시)

계부터 1시간30분가량 친교 만찬을 가졌다. 친교 만찬에 북한 측에서는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참석했다.

한편,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은 28일까지 진행된다. /김진성 기자

***삼일절 관계로 3월 1일자 신문 쉽니다.